



기부하고
농산물 홍보하고
달리고

GO!

제52회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영산강길로 이어진 코스에서 열렸다. 폴코스(42.195km)에 출전한 선수들이 출발신호와 함께 금남로를 역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난치병 어린이 위해 달린만큼 기부...농산물 알리기 한몫
동호회·커플 질주에 시민 응원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5일 펼쳐진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마라톤러들이 달리는 거리 만큼 기부금을 모아 희귀 난치성 아이들을 위해 쓰는가 하면, 내 고장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장으로 변신, 지역의 대표적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역시나...어머니 =전년도 폴코스를 뒀던 관록은 무시할 수 없었다. 전년도 폴코스 여자부 우승자인 이선영씨는 올 해 하프코스에 출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뒀던 뒤 컨디션 문제로 폴코스를 포기했지만 하프코스 우승을 거머쥐는 저력을 발휘했다. 전년도 폴코스를 뒀던 박창하·이재식씨도 하프코스로 바꿔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해 하프코스 남자 2·3위를 차지했던 박창하·이재식씨의 경우 올 해 대회에서는 순위가 바뀌었다. 이씨가 2위, 박씨가 3위로 끝이었다.
올 해 폴코스 여자부 우승자인 이정숙씨는 전년도 폴코스 2위의 아쉬움을 떨쳐냈다. 남자 폴코스 우승의 영광은 구미에서 처음 광주를 찾은 최병진씨에게 돌아갔다. 그는 우승을 노렸던 전년도 상위 입상자들을 따돌리며 '깜짝' 우승했다.
◇함께 즐기는 축제...=승을 기쁘게 몰아쉬면서 결승선 앞에서 셀카를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려는가 하면, 피켓을 만들어 가족의 완주를 응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대회가 하프코스와 폴코스 부문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동호회를 비롯, 젊은 커플·직장 동료, 가족 등이 대거 참여해 도심 코스를 달리며 화사한 봄 정취를 즐겼다.
양대동 광주시육상연맹 상임부회장은 "마라톤을 즐기기에 최적의 날씨였다"면서 "전문가 위주의 코스임에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려는 참가자들이 많아 호남 대표적 마라톤의 명성을 확고하게 했다"고 평했다.
파랗파랗 새옷을 갈아입는 공원으로 주말 나들이를 나섰던 지역민들도 대회 결승선 앞에서 환호

■ 3·1절 기념 마라톤 부문별 순위·기록

부문	순위	이름	기록
폴코스 남자	1	최병진	2:38:51.46
	2	이홍국	2:39:04.38
	3	최진수	2:40:46.44
폴코스 여자	1	이정숙	2:58:45.88
	2	정기영	3:04:16.74
	3	박은숙	3:12:50.34
하프 남자	1	박홍석	1:10:51.35
	2	이재식	1:13:10.76
	3	박창하	1:13:57.61
하프 여자	1	이선영	1:24:41.71
	2	이은혜	1:27:53.84
	3	정예순	1:34:26.72

성을 지르며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주말, 봄맞이 달리기 축제를 즐기는 학생 자원봉사자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좋은 날씨·역사적인 코스 어울린 최상의 대회”

‘심판 총괄’ 심재용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관전평

“좋은 날씨와 역사적인 코스가 어우러진 최상의 대회였습니다.”
심재용 대한육상연맹 부회장(광주시청 육상감독)이 제52회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심판 총괄로 나서 ‘호남 마라톤 축제’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심 부회장은 “특별한 사고와 부상자 없이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마라톤을 즐겼다”며 “오전에 날씨가 흐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마라톤을 뛰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 조금 쌀쌀한 가운데 바람도 불지

않아서 달리기에는 최상의 날씨였다. 날씨 영향으로 좋은 기록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3·1 마라톤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부회장은 “많은 이들이 주말에 부담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3·1절이 있는 일요일에 대회가 치러졌다. 3·1절의 의미와 우리 지역 마라톤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대회였다”며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홍, LA 김원식 등이 달렸던 3·1 마라톤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이자, 대선배들이



누렸던 광주 도심 코스를 그대로 달릴 수 있는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 부회장은 “훌륭한 코스 때문에 실력 있는 마라톤러들이 전국각지에서 광주를 찾고 있다. 3·1 마라톤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하다. 교통통제에 협조해주고 마라톤에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또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일 열린 3·1절 기념 마라톤대회 폴코스에 출전한 최병진씨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